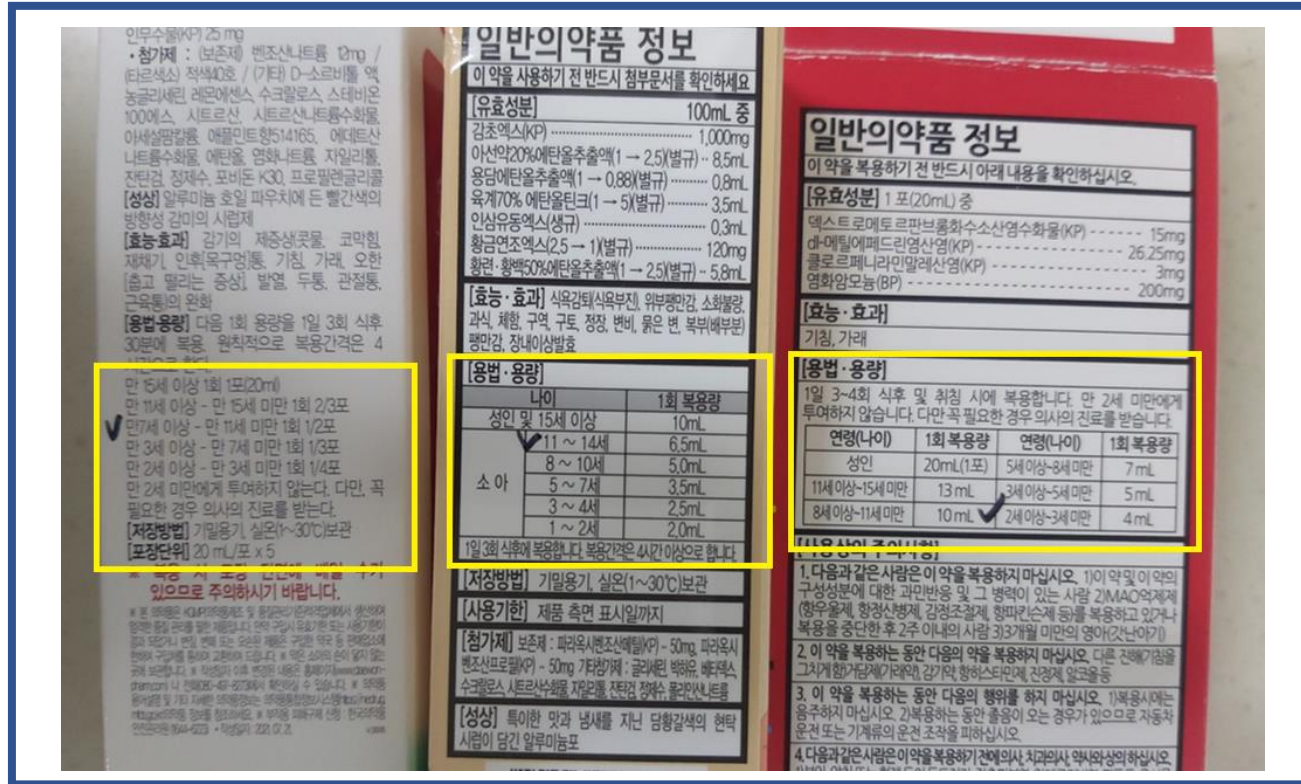




별도의 투약병 없이도 간편하게 용량 확인 할 수 있는 물약 봉투

제작 동기

집 밖에 있거나 여행 등으로 외부에서 포 형태의 물약을 먹어야 할 경우, 용량을 확인 할 수 있는 별도의 PET재질의 투약 병을 따로 챙겨야 하고(없다면 용량 확인 불가능) 사용한 투약 병은 씻어 쓰거나 다시 재활용하기도 어려워 그대로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집에서 PET 투약 병이 떨어져 용량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개봉해서 일부만 섭취하고 남은 물약은 약봉투를 닫을 수 없어 버리게 되거나, 임시로 묶어 둔다 해도 어딘가에 흐르게 되는 등 불편함을 많이 느껴 발명품을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약은 정해진 양만큼 정확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영유아는 체중과 나이에 맞춰 포장된 약의 일부 용량
 만큼만 섭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약은 용량을 확인 할 수 있는 별도의 PET재질의 투약 병을 항상 따로 챙겨야 합니다. 또 개봉해서 일부만 섭취하고 남은 물약은 임시로 묶어 둔다 해도 새거나 보관이 어려워 항상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제작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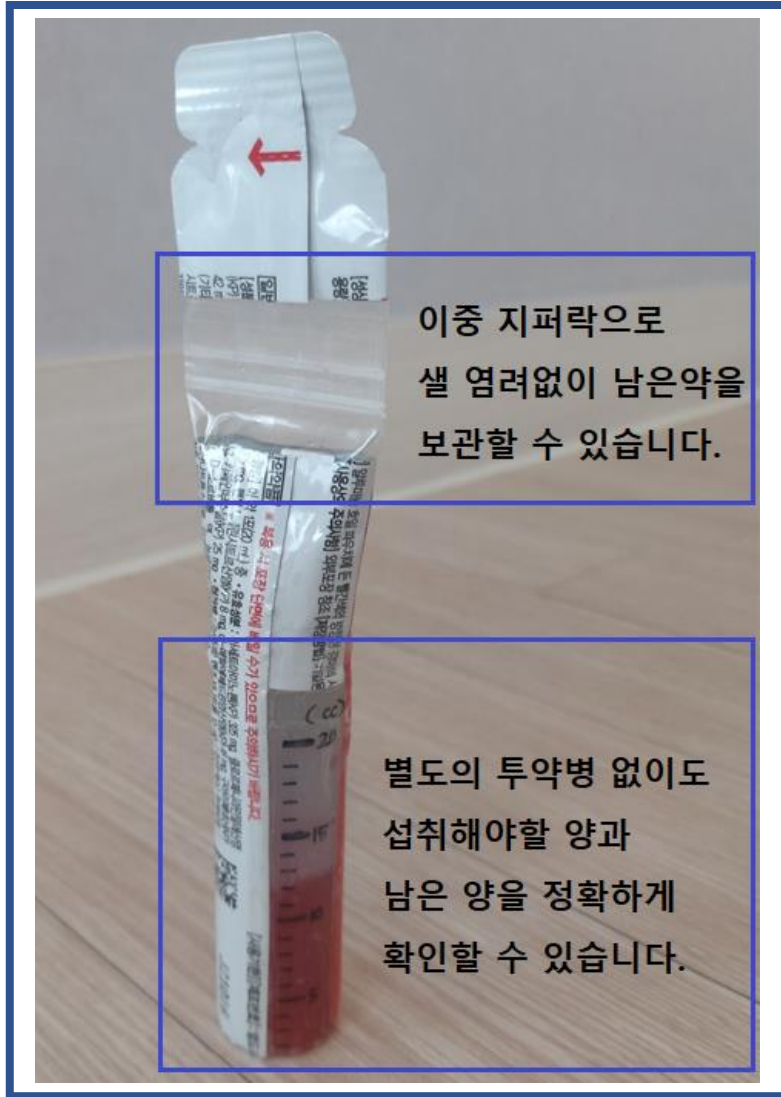
+



눈금자를 넣은 원통형으로 만들어 용량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중 지퍼락이 달린 윗부분은 남은 물약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약 봉투를 원통형으로 제작하면 중력의 힘으로 봉투 밑으로 약이 몰려 항아리처럼 되는 현상을 막아줍니다. 원통형 몸체의 눈금자는 용량을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 윗부분의 이중 지퍼락은 남은 약이 공기나 외부 물질에 닿아 오염되거나 혹은 어딘 가에서 샐 것을 염려해 남은 약을 그냥 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기대 효과

언제 어디서든 물약의 용량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별도의 PET 투약 병을 소지하지 않고도 정량의 약을 투약 할 수 있도록 만든 물약 봉투는 형태가 잡혀져 있는 두꺼운 소재로도, 시중의 얇은 물약 봉투 재질로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끈적끈적한 물약을 담았던 PET 재질의 투약 병은 씻어 다시 사용하기도 비위생적이고, 재사용이 어려워 거의 일회용으로 쓰이고 있는데 PET 투약 병을 쓰지 않아도 되니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할 수 도 있는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먹고 남은 약을 아무데나 버리지 않게 되니 이 또한 장점입니다. 발명품을 제작하면서 생각해보니 꼭 물약이 아니더라도 포로 된 가루약에도 이런 형태의 봉투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